

4) 병란과 사림활동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발생한 임진·병자 양란은 지역사회에서 사림세력을 재편성, 재결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는 병란참여의 결과 명망을 얻음으로써 후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장윤(張潤 : 1552~1593)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임란공신이다. 그는 무과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좌의병부장(左義兵副將)으로서 진주성에서 전사하였다. 순천의 정충사(1683년에 건립, 1686년에 사액)와 진주 창렬사(彰烈祠)에 제향되었으며,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이때 그의 부친 응익(應翼), 조부 자강(自綱), 증조부 효례(孝禮)도 함께 추증되었다. 응익은 진사로 어모장군해서후선전관(禦侮將軍海西候宣傳官)을 하였다.

장윤의 상계(上系)는 다음과 같다.(『특천장씨족보』 4권 3책, 1900)

박대봉(朴大鵬 : 1525~1592)은 상주박씨 입향조 박증손의 손자이고 교위 매(梅)의 아들로 승사랑(承仕郎)을 지낸 자이다. 호는 남포(南浦)이며 1556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주부에 이르렀다. 1565년의 기축사화 때 상소를 올리다 투옥된 후 이정구(李廷龜) 등의 구조로 풀려나 낙향하였다. 임진왜란 때 고경명 등과 의병활동을 하다가 금산에서 전사하였다.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에 책록되었다.

장윤의 상계

허일(許鎰)은 양친 허씨 19세로 자는 여중(汝重), 호는 남포(南圃)이다. 1545년에 태어났으며,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 1513~1577) 문하에서 배웠고, 김덕령(金德齡)·임현(任鉉)·우성전(禹性傳) 등과 도의(道義)의 우(友)로 지냈다. 임진왜란 때 김대인(金大仁), 정사준 등과 의병으로 활약을 하였다. 그의 셋째 아들 곤(坤)은 순의록공(殉義錄功) 2등공신이 되었다.

정빈(鄭·)은 승평사는 정사익의 아들이다. 자는 공백(恭伯), 호는 곡구(谷口)로, 안방준(安邦俊)의 문인이다. 삼촌 사횡과 함께 군량을 모아 의주로 보내는 등의 의병활동을 하였다. 4개 현에 수령으로 부임하였고,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안방준(1573~1654)은 보성 출신이지만 이곳 사림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었다. 자는 사언(士彦), 호는 은봉(隱峰)·우산(牛山)이며, 죽산(竹山)이 본관이다. 1591년에 파산(坡山)에 가서 성혼(成渾)의 문인이 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박광전(朴光前)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614년에 보성 우산에 들어가 후진을 교육했다. 이후 정묘호란·병자호란 등 국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1623년의 인조반정 후 교유가 깊던 공신 김류에게 “거당론(去黨論) 수인재(收人才)하고 선공후사(先公後私)하라.”는 시무를 건의했다. 우산은 보성 북쪽의 촌명인데, 보성·순천·동북 3개 읍에 걸쳐 있으며 보성에서 60리, 순천에서 100여 리, 동북에서 50리 떨어져 있다. 그의 신도비명은 우암 송시열이 1663년에 찬하였다. 하서(河西) 김인후, 석천(石川) 임억령과 함께 호남삼고(湖南三高)로 칭함을 받았다.

정사준의 자는 근초(謹初), 호는 성은(城隱)으로, 승복의 셋째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아우 사횡과 함께 충무공 이순신을 따라 공을 세웠는데, 그 기록은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에 있다.¹⁾ 그는 결성현감(結城縣監)을 지냈으며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대제학 홍양호(洪良浩)가 그의 묘표를 찬하였다. 그의 아들 선(愼)은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의주 피난에 공헌이 있었다. 이 사실이 공신록에도 실렸다.²⁾

1) 『李忠武公全書』 권14, 附錄 李舜臣.

2) 『이충무공전서』 권14에는 이밖에도 이곳 출신 의병으로 李奇俊에 대한 기록도 있다.